

TOWADA

0:42	처음 부지를 보러 갔을 때였을까요, 도쿄에 비해 도와다가 굉장히 투명감이 있는 도시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0:56	그 후 설계 때문에 꽤 많이 다녔는데, 도와다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05	안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건물이 아니라, 웬지 모르게 도와다시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13	설계 이전부터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와다에서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설계에 임했습니다.
1:36	도와다시의 요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관공서 거리 전체를 부활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공기관이 모여서 활기가 넘쳤던 거리인데, 이제는 관공서 거리가 아닌 예술의 거리로 재생시키겠다는 큰 그랜드 디자인을 도와다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5	그 일환으로 미술관의 포지셔닝이 필요했고, 거리와 하나가 되는 건물, 혹은 거리의 일부가 되는 건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2:27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공터가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이 나오는데, 거리 전체를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의 일부, 혹은 전시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그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거리를 걷다 보면 이미 그 활동, 예술이 느껴지는, 부지 경계를 넘어선 예술과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3:09	한편, 맞은편이나 대각선 방향에는 건물로 가려지지 않는 예술작품이 늘어서는데, 그쪽은 부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위화감이 없는 건물도 생각했습니다. 일부 작품은 커미션 작업인 경우도 있고, 그대로 노출된 채로 길거리에 등장하는 작품도 있고, 우연히 커버가 씌워진 작품도 있어요.
3:37	거리 안에 연속성이 있듯이, 거리로서의 일체감 속에서 의미가 있는 미술관을 생각했습니다.
3:51	그러다 보니 하나의 큰 볼륨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각각의 아트에 커버라는 건물을 부여하고 그것이 거리를 따라 전개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4:09	그러다보니 일부 작품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작품은 덮개가 씌워진 채로 줄지어 있는 집합체 같은 느낌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4:41	자연광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예술은 과감하게 길가에 쇼윈도처럼 배치해 길을 걷다 보면 쇼윈도를 보는 듯한 형태로 예술이 보이고.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비디오 아트인 경우, 반대로 도시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쪽에 있는 형태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9	또한, 안에 있을 때 예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공서 거리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21	미술관만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상점가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 속에서 이 건물에 들어와다가 다시 옆 건물로 갈 때 다리를 건너갈 건데 그 다리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도와다의 거리와 사계절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45	제1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제2전시실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제3전시실을 느낄 수 있는 유도가 있다면 부지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이클 린의 이 방은 비스듬히 정면을 향하고, 내부가 잘 보여서 '다음엔 저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건너편에 있을 때 소방서와 이 건물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파사드를 최대한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았어요.
6:21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서있는 건물도 하지만, 그건 우연이고, 역시 거리에 예술이 존재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술은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6:48	거리를 따라 서고 싶은 예술도 있고, 그것에 반항하고 싶은 예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상상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7:04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그리드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그리드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는 등 자유로운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7:23	건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지가 직사각형이라 대지에 맞추고 싶지만 동시에 대지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두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7:34	매번 두 가지가 모두 나와버리거든요.

7:37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앙이 높고 주변이 낮게 배치해 큰 모양이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태적으로 뒤쪽의 위압감을 줄이려는 의식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조각적인 일체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8:12	도시 자체가 격자형인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유산이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만으로는 딱 막히지 않은, 어떤 틈새의 투명함을 저는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8:28	그런 의미에서 예술도 모두 가득 들어가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공간에 예술이 놓여짐으로써, 어딘지 모르게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반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찌면 다음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죠. 건물은 건재하여 그쪽이 중심인 것은 물론이지만, 건축도 예술도 둘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축이라고 할까, 도시계획으로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5	건축으로서의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아까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누가 봐도 이 건물은 세금을 내러 오는 곳이잖아요. 엽서를 보내러 오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러 오는 곳인가.
9:46	생일선물을 줄 때, 우연히 포장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남에게 던져주지 않잖아요. 예쁘게 전달하겠지요. 신사(神社)도 마찬가지죠.
10:15	요컨대 내용을 찬미하는 것,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건축 형식의 원형이자 시작인 셈이죠.
10:31	그저 커버, 장식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진 주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01	길거리에 예술이 있다는 것, 꼭 미술관 부지가 아니어도 예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1:10	처음에는 흰색으로 통일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얀 상자가 아니라 민가 안에 예술이 있는 형태로도 괜찮고, 더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작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유명 작가를 초청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0	예술과 삶은 결국은 같은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